

주의 회복의 세 방면

(2)

하나님-사람 생활

성경: 빌1:19-21상, 3:10, 갈2:20, 히6:19-20, 13:13, 출33:11상

- I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-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으로서 함께 사는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—빌1:19-21상, 갈2:20.
 - A. 주의 회복은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-사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.
 - B.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부흥(합3:2상)을 구해야 하며, 이 부흥은 하나님-사람 생활이다.
 1. 이것은 가장 탁월하고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높은 표준의 인간 미덕을 지니고서, 완전히 존귀하게 된 삶이다—빌1:20.
 2. 이것은 예수께서 신성하게 풍성케 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이 땅에서 다시 사시는 삶이다—벧전2:21.
 3.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사셨고 그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을 통해 계속 살고 계시는,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신 하나님-사람의 삶이다—갈6:17.
 4. 이것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이다—행1:8, 빌1:20-21.
- II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거듭나 하나님-사람들이 된 믿는 이들이 그들의 옛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새 사람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 내는 삶이다—롬6:4-6, 엡4:22-24.
- III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삶이며,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삶이다—빌3:10, 1:19-21.
- IV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자아와 육체와 육체에 관련된 것들—죄, 사탄, 세상—을 이기는 삶이다—마16:24, 갈5:24, 롬8:3, 히2:14, 요12:31.
- V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종교와 문화와 이 시대의 조류와 오락을 이기는 삶이다—갈1:4, 롬12:2.
- VI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생명으로 왕들로서 다스려서 하나님과

반대되는 모든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정복하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는 삶이다—5:17, 21, 계2-3장.

VII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삶이다—히 6:19-20, 13:13.

- A.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,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배척받으신 곳인 종교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.
- B.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. 체험적으로 말해서 영은 오늘날의 실제적인 지성소이며, 오늘날의 실지적인 진영이 있는 종교 밖이다.
1.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,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.
 2.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 영광 안에 계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, 낮아지신 예수에게 이르러 그분과 함께 고난받게 된다.
 3. 진정한 신약 사역은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, 즉 휘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끌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, 그분의 몸을 위해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를 따르게 한다—고후11:2-3, 23-33.
 - a. 휘장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여, 진영 밖에서 목마른 영들에게 그분을 공급하도록 장비된다—비교 행6:4.
 - b.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감으로 우리는 그분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모든 선한 일로 무장된다—히 13:20-21.
 - c.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며,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참하고 그분을 감추인 만나와 짝난 막대기와 생명물로 누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산출되도록 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—9:3-4.
- C. 모세가 그의 장막을 옮겨 우상 숭배하는 진영에서 분리시킨 후, 주님은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—출33:11상.
1. 하나님과 모세는 같은 일에 관여하고 커다란 사업에서 공동 이익을 얻는 동반자와 친구와 동업자였다.
 2.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,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,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.
 3.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, 주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, 하나님과 공동 이익을 나누고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.